

길쭉한 책을 읽으며 막 웃었어. 나는 '비 행동이 효과로는 최고였다고
생각해'. 리키도 이 사건 덕에 변해갔잖아. 너가 감정을 밖으로 꺼내지
않았다면 아마 영원히 아무도 너의 진심을 알지 못했을거야. 감정이라는
작은 씨앗은 풀기만 하면 씨에버리나가 많아 슬프지만 혼자 감정을 품고만
있으면 계속 '조아여'가 될 뻔이잖아.

너를 따라 할머니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, 할머니의 어린 시절을
알아가면서 나는 네가 변해가는 걸 느꼈어. 힘든 사건이 생길 때마다 너는
용감해지더라. 그리고 절대 도망치지 않았어. 마치 네가 볼을 찔러 하는 것 같더라.
네가 마음의 보석을 찾고 반질반질 닦아서 내놓을 때마다 감탄했어. 그
누구도 너에게 함부로 명령할 수 없는 사람이 결국 되었잖아.

릴리아, 나도 너처럼 도망치지 않고 용맹해 질 수 있겠지? 나도 호랑이가
될 수 있겠지? 나도 네 아메 숨은 보석을 잘 꺼내어 닦아볼게. 네가 꼬렸던
것처럼 말야. 나 내일 새학교 가는 첫날이야. 나 잘 할 수 있겠지?
힘 좀 보내줘. 아자! 아자! 이렇게 편지를 쓰면니, 릴리아,
나 왠지 완벽하지 않아도 너처럼 제법 멋있을 수
있을 것 같아. 고마워. 릴리아! 우리 책에서
재작 만나자. 안녕!

